

An Experimental Sea-Speak Syllabus for V. H. F. Radio Communication

Jeong-gil, Park.

< 목 차 >	
Abstract	V. 해사영어 교재 분석과 Communicative materials의 design論
I. 서론	VI. Sea-speak : Communicative syllabus의 試案
II. 영어의 역할	VII. 결론
III. ESP의 발달	
IV. Syllabus論	

Abstract

The importance of English as a world language seems by now secure. And the trend towards the learning of English language is for 'specific' rather than for 'general purposes'.

The needs of English language for maritime students are immediate not only for maneuvering their ships but also for engaging in communications at sea or in the field of nautical science.

In this paper, the writer surveyed primarily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SP and analyzed some sea-faring books written in English and tried to design and experimental sea-speak communicative syllabus related to the VHF radio communication.

* 이 논문은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의 지원에 의해 행해졌음.

I. 서 론

Special-Purpose Language Teaching(=이하 SP-LT)에서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이하 ESP)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分野에 대한 研究와 發展이 계속되고 있다. 教授者의 立場에서 보면 ESP란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이하 TEFL)의 한 분야에 든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오늘날 ESP가 言語教育에 있어서 이처럼 열화같은 注目을 끌게된 要因은 時代的 變化에 따른 급속한 세계환경의 변천에도 크게 영향을 입었겠으나 그 무엇보다도 學校의 正規語學 教育過程을 거친 話者들(西洋의 경우는 Secondary Level을 두고 한 말)이 각기 다른 직업영역에서 업무수행상 필수불가결한 의사소통의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學習者들에게 제공하지 못한 학교 教育過程의 기획과 그 運用의 실패에서도 적지 않은 要因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언하면, 학교가 제공하는 正規의 語學過程을 이수하고 학교를 떠난 學習者가 어떤 직업이나 직업훈련, 또는 有關기관이나 有關기관의 研究者로서 효과적으로 맡은 바 수행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한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비롯되는 의사소통의 장애에서 그 문제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본다.

따라서, 현재의 SP-LT의 研究를 위한 言語學習 영역은 급증하는 학습자 못지않게 이들의 要求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교사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교수기술의 개발과 함께 有意한 方法論의 탐색에 영일이 없을 만큼 빠른 추세로 발전,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發展과 變化의 정도는 語學教育의 궁극적인 목표가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특수영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그 경향성이 변모해 가고 있는데서도 찾을 수 있겠다.

Peter Strevens는 날로 증가해 가고있는 이 方面의 동태를 설명하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세계적인 추세의 일면을 말하고 있다.

Increasingly, learners are seeking to learn, for example, Russian, specifically in order to read scientific papers on the aerodynamics of supersonic flight ; German, specifically in order to act as an importing agent for German domestic electrical appliances ; French,

specifically in order to work as an international aid expert on tropical agriculture in Senegal ; English, specifically in order to study textile engineering at Leeds University ; Portuguese, specifically in order to extend local contacts in the port wine industry ; and so forth.¹⁾

그런데 이러한 경향성에 대한 그의 지적도 현재 각국에서 凡國家的으로 추구하고 있는 특수목적에 위한 ESP로서의 광범한 語學教育의 실태를 감안한다면 한조각 편린의 예증에 불과함을 쉽게 알 수 있다.

西歐는 지금 外國語教育을 단순히 일반적인 학교교육의 人文學的 要素의 一部分으로 지도해 온 인습적인 외국어교육의 경지를 넘어서고 있다. 학습자나 교수자 모두가 지향하는 바 목표는 Target Language의 모든 면을 능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토록 하고 또 도달시켜야 한다는 목시적 전제 아래 언어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

물론 우리의 어계와는 달라서 동일어계에 속하는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우리의 현실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있기는 하나 그들이 결코 어계가 다른 언어를 SP-LT로서의 언어연구나 교육에 등한시 하거나 도외시 하고 있지 않으며 그렇다고 기본적인 어학학습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요약하면, 구미인들은 이제 종래 그들이 인습적으로 견지해 온 일반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소극적인 언어교육의 관점이나 자세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성취의 자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ESP로서의 語學教育은 英語만이 그 대상일 수가 없다하겠다. 그러나 國際語로서의 더 없이 큰 수요는 단연코 英語에 있으며(Technical Training Field이하 TTF)에서도 역시 英語가 지배적인 말이 된것은 기정사실이라 할 것이다. 海運界도 TTF의 한 분야이고 성격상으로 지향하는 바가 어느 직종 못지않게 國際性이 강한 전문직이라 할 때 第二外國語 話者로서의 ESP로서의 海事英語에 대한 해득과 원활한 구사능력의 필요성은 선박의 운항과 업무수행에 앞서서 반드시 갖춰야할 필수적인 장비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國際語로서의

- ① 영어의 역할과 우리의 실정을 개관하면서
- ② ESP에 대한 'General Survey'를 통하여 그 '이니셜'이 정착되기까지 과정을 알아보고

1) Peter Sterevens. Language Teaching & Linguistics : Abstract. In Special-purpose Language Learning : A Perspective. Vol. 10 No. 3 July 197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③ 학습현장에서 교수상의 기본이 되는 Syllabus의 작성시에 Syllabus가 담을 내용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종류를 알아본 후에, 이를 중심으로 'material design'에 있어서 그 어떤 方法이 상대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先學들의 主張을 통하여 관찰한 다음, 지금까지 제작된 해사영어 교재들의 내용과 특유의 강조점을 분석해보고 선박의 운항과 관련되는 topic中에서 해사영어 syllabus, 特히 선박사관이 철저히 숙지해야 할 VHF Radio를 통한 Sea-Speak의 과정과, 이에 따라 유의해야 할 syllabus를 design해 보고자 한다.

II. 영어의 역할

오늘날 英語의 重要性은 (일반적인 소양의 목적으로든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든간에) 재론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英語는 이미 가장 有力한 國際共用語가 된 것이다. 1957년에 나온 UNESCO의 한 報告書는 "Engineering界의 거의 2/3이상이 英語를 읽지 못한다"²⁾는 報告도 겸하고 있다.

Ewer and Latorre:(1967)

"Success in graduate work is becoming more and more related to the ability to read the appropriate literature in English and to take part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where the greater part of the contracts take place through the medium of English".³⁾

라고 말함으로써 英語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있다.

英語가 이처럼 世界語로 각광을 받게된 상대적 重要性의 要因으로서 Quirk는 ① 母國語 話者의 數, ② 英語使用의 地理的 分析, ③ 文化的 重要性, ④ 母國語 話者의 경제 적, 정치적인 영향력에 있으며 네가지 要因을 종합할 경우, 英語는 매우 重要한 言語이며 그 相對的 重要性에 관련된 基本的 事實로서 ;

2) Ronald Mackay & Arnold Mountford.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Longman, 1978. p. 6.

3) Ewer, J. R. & Lattore G. 'Preparing an English course for students of science'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Vol. xxI. No. 3. 1967

- 1) 英語는 UN와 USA 以外에서도 Australia, New Zealand, Canada에서 母國語로 使用되고 있으며,
- 2) Asia와 Africa 地域의 몇몇 나라에서 第二言語로 使用되고 있고,
- 3) French와 더불어 'working language'로 使用되고 있음과 함께,
- 4) 종종 좋은 職業을 갖는데 必要條件이 된다는 點.
- 5) 世界の 科學文獻의 1/2이 英語로 出版되고 있다는 點.
- 6) 世界の 技術的, 經濟的 發展과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다는 點.
- 7) 民間航空, 海運, sports에 있어서 世界共通語라는 點.
- 8) 世界の 郵便物の 70%는 英語로 쓰여진다는 點.
- 9) 世界の radio 放送의 60%가 英語로 行해지고 있다는 點.⁴⁾

등을 예시하고 있다(7)의 하선은 필자).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특히 第七項의 “海運”部分이 世界共通“라는 그의 지적이다. 그리고 그가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언급한(하선 그은 부분의 계속되는)말에서 海事英語를 매체로 하는 communication의 重要性이 구체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본다.

“I don't need to tell you about the importance of the world's merchant navies, the vast tonnage carried annually, the vast size of the present generation of bulk carriers, the vast scale of loss of life, property and ecology whenever a disaster occurs. I don't therefore need to tell you about importance of marine communication, between the ship and ship, between the ship and shore. Disasters are averted only through rapid effectiv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海上에서 일어날 수 있는 communication의 오해나 중단(Breakdown)은 相互間에 挫折感을 주고 때로는 悲慘한 事故를 유발케 한다. 따라서 英語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승무원, 특히 선박 士官들에게 英語를 매체로 하는 의사전달의 능력배양은 매우 절박한 과제라 할 것이다.

船舶士官의 過程에서 學習者는 A MAIN STUDY LANGUAGE로서의 英語, 즉 좀

4) 5) Ki-moo BAE 해대논집, 19, 1984, p. 74.

더 구체화하면 shipping, Ship Types, ship construction, Manning, Seamanship, Cargo Work, Navigation, Main Engines, Auxiliary Machinery Maintenance, Safety Aboard, Communications at sea, etc. 따위의 科學的 知識을 얻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영어와 An Additional Language로서의 영어, 즉 말은 바 역할에 관한 보조적 또는 긴요한 역할체로서의 영어를 배운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英語로 된 교재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쓰고있는 점이다. 특히 英語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의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교재들이 知的理解는 물론 수준 높은 Language Proficiency가 요구된다고들 하고 있다(see 1978 Mackey : 7).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한 知識을 요구하는 매우 난해한 제재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언어 이해력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母國語者가 아닌 이들 대부분의 학생들은 科目의 成功과 失敗, 그 자체가 영어해득의 잘, 잘못에 달려있을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데 영어를 부차적 역할 정도로 학습하는 여타지역(우리나라를 포함하여)에서는 Secondary Level까지 6年間을 배웠다해도 결과는 Minimal Ability 정도의 활용과 이해에 머물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환경조건에서는 영문과 소속이나 일반대학의 영어과 소속의 교수들이 가르치는 영어교수방법과,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분야에서 지도하는 영어교수 방법은 물론 그들이 지향하는 의도나 조건에 차이가 있다. 환언하면 전자는 대개 Structural Pattern을 조작하도록 지도하거나 Conversational English를 연습토록 지도하지만 후자는 대체로 빨리 내용을 읽어 내는 Reading skills쪽에 더 關心이 있다. 상황이야 어떻든 이 두 과정 모두가 Textbook, Periodicals, Journals, Reports, Abstracts, 읽어서 그 속에 담긴 내용에 대한 知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根本的으로 英語를 보는 시각은 같다.

말하자면 SP-LT의 분야에서 이 경우 학습자가 이해하고 있는 언어의 역할은 data의 해석이나 이론, 가장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 따위를 해석함으로써 전문적인 知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영어는 제3의 레벨, 특히 우리의 실정으로 보면 그 자체가 특정의 전문화된 知識의 영역에 들어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영어를 배우고 교수하는 이상적인 方法은 A Main Study Language이든 An Additional Study Language로 쓰이든 간에 英語라는 Language가 쓰이는 이 양자의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일련의 종합적인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III. ESP의 발달

1) ESP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이에 관한 定義와 이의 發生時期를 찾으려는 역사적 연구를 同伴하고 있다.

Strevens⁶⁾는 SP-LT의 두가지 Types를 ‘Traveller’s Language Course’ 및 ‘German for Science Students’로 제시하고 그 歷史를 길게는 1576年에서 짧게는 半世紀前인 1932年까지를 ESP의 Starting Points로 잡고 있다.

그러나 Coffey⁷⁾는 1967년을 전후로 한 年度를 ESP의 有力한 starting Point로 보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 가운데 Computer-Assisted Learning이라거나 Application of Video와 같은 학습기법과 교육보조자료, ESP에서는 말할것도 없이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이라는 말이 Course Content에 들어 오는 중요한 局面 등, 당시로서는 ELT 活動으로서 ESP가 유일하게 지대한 關心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ESP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도록 해 주었다는 의미에서 有用하다고 하였다 그는 부연하기를 ;

“What probably happened in the late ‘60s and early’ 70s to give ESP such a lift was a demand explosion, generated by events in the OPEC world, where could be found huge financial resources under national control, proliferating technological needs, an insufficiency of existing English-learning facilities, and a degree of dependence upon expatriate expertise that was felt to be ultimately unacceptable. This gave powerful impetus to trends within the profession that had already acquired some momentum of their own.

There is no indication that this demand will ever die down for reasons of professional circumstance”.⁸⁾(하선은 필자)

6) Ibid,1. pp. 150-151.

7) Bernard Coffey. Language Teaching, The international abstracting Journal for Language teachers and applied Linguistics. vol. 17 No. 1. Jan. 1984.

8) ibid, 7. p. 3. “ESP-English for Sopecific Purposes” pp. 2-3

라 하여 OPEC제국의 ESP수요가 가치 폭발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결론부분에서 ESP의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기대는 앞으로도 Professional Circumstance 즉 Successful Product를 위하여 ESP과정의 수요가 감소되거나 누그러질 조짐이 없다고 못 박았다.

2) INITIALS ; 본래ESP의 Initials중에서 's'의 뜻이 'special'의 意味인지 'specific'의 意味인지 그 뜻이 불투명하였다.

Strevens의 1977 ; Special-Purpose Language Learning : A Pespective(=이하 SP-LL)에서도 ESP의 'S'는 한정적인 意味로 쓰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special'로 Initial의 뜻을 표기하고 있다.

“Within the teaching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nglish for Special Purposes (ESP) is the most rapidly growing subdivision. Many of our illustrations will be taken from ESP, but the point needs to be made that ESP, important though it is, is simply a special case of SP-LT.”⁹⁾

R. Mackay and A. J. Mountford의 1978 : The Teaching of English Special Purposes : Theory and Practice(=비록 책의 제명은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라고 해 두었지만)에서도 ESP는 English for Special Purposes라는 풀이를 했을 뿐 ESP, EOP, EAP, 처럼 통일된 풀이는 없으며, 다만 Special Purposes and Special Language라는 항목에서 ESP중의 's'는 a special aim을 함의한다고 했을 뿐으로 Initial 's'를 보는 견해는 前者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ESP의 'special'이란 말에서 우리는 학습자가 배우는 언어자체에 역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학습을 쌓는 학습자의 purpose에 더 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9) *ibid.*, 1. P. Strevens. p. 146.

10) *ibid.*, 2. R. Mackay & Mountford. p. 4.

“Special purposes implies a special aim. This aim may determine the precise area of language required, skills needed and the range of functions to which language is to be put. But it need not imply a special language. ‘It is easy to confuse the idea of a special language (or segment of a language) with that of specialized aim. (perren, 1974) clearly the two notions interlock, but they need to be discussed separately.”

좋을 것이다.

그런데 B. Coffey 1984 ; 에 와서는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S”라는 말로 Initial의 ‘s’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본다. 그는 Strevens와 Robinson이 學名의 정확한 기술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The ‘s’ of ‘ESP’ has now settled down firmly as ‘specific’, a usage endorsed by, for example, the entries in the list of British University course Titles in the British Council’s TEFL/ TESL Guide for 1983/4¹¹⁾

이러한 Coffey의 주장이 나오기 전에 이미 Robinson, P. C.에 의해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1980) : oxford : pergamon press가 나왔으므로 그간에 Initial에 대하여 異見이 분분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Willmott교수는 ESP의 Initials 중에서 ‘s’의 意味에 대하여 언급하는 가운데

In the profession we discard ‘special’ largely to make it clear—that there is nothing special about language that we use for science technology—that is, nothing that distinguishes it from the language we use for anything else” (1985/6 PMLT)¹²⁾

라고 함으로써 ‘specific’이 선택상 타당하다고 보고있다.

그런데 specific의 선택만으로 ESP가 담고있는 內容이 전부 구체화 된 것은 아니다.

Strevens(1977 : P146)는 ESP를 확실히 규정하는데 따르는 실질적인 세가지 어려움을 :

- i) The difficulty of drawing the line between ‘general’ and ‘special’ purposes ;
- ii) The effect upon this problem of the great extension of the range of courses to which the label has in recent years been applied ;
- iii) The element of fashion, which tempts course organiser or textbook writers to attach the label of ‘special purposes’ to courses with little or no justification for

11) *ibid*, 7. B. Coffey. p. 3.

12) Willmott. PMLT 1985-6. Topic summary—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p. 1.

doing so.¹³⁾

라고 말하고 'Special'과 'General'의 기준설정이 용이한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Special'과 'General'의 區分에 있어 어려움이 감소될 것이라는 希望을 表示하였다.

a) Once the language course can be shown to possess major characteristics not shared by general courses.

b) When a course deliberately restricts what it sets out to teach(e.g. eliminating one or more of the 'basic skills') in order to conform to obvious features of the purposes for which it is designed.

c) When a course is designed round a set of communicative needs having little or no affinity with conventional general courses.¹⁴⁾

위의 범주에 드는 名題의 보기를 들어 설명한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모든 과정의 교재가 특정의 주제나 특정의 직업에서 나온 실용적인 면을 추출한 것; 이를테면 German for polymer chemists, spanish for social scientists, English for jet engine maintenance engineers, etc,

2) 독본위주(Reading-only)의 科學을 內容으로 한 英語, 혹은 말하기 위주(oral-only)의 內容으로 된 과정; 가령 이민을 온 의사가 환자의 병세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venacular spoken English를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든 내용으로 된 과정.

3) 항공 관제사 과정; 이 경우는 국제규약에 의거, 어휘나 文法構造의 폭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Spoken Radio Messages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필수적이고 응답이 재빠르고 완벽해야 하며 同時에 written notes를 할 수 있어야 하고 operation technique로 유시계의 자막(visual displays)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어쨌든 그도 'and there are always borderline cases which are require arbitrary decisions'라 하여 'General'과 'Special'간에는 임의적인 판단 즉 어떤 때는 분명하고 어

13) *ibid*, I. P. Strevens. p. 146.

14) *ibid*, I. P. Strevens. p. 148.

면 때는 모호하지만 SP-LT를 規定하는데 다음의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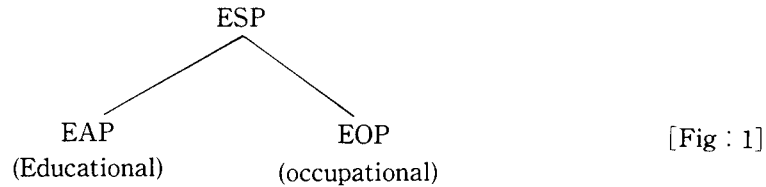
- 1). In SP-LT the language-using purposes of the learner are paramount.
- 2). The content of SP-LT language courses are thereby determined, in some or all of the following ways:
 - i) restriction : only those 'basic skills' (understanding speech, speaking, reading, writing) are included which are required by the learner's purposes ;
 - ii) selection : only those items of vocabulary, patterns of grammar, functions of language, are included which are required by the learner's purposes ;
 - iii) themes and topics : only those themes, topics, situations, universe of discourse, etc., are included which are required by the learner's purposes ;
 - iv) communicative needs : only those communicative needs(i.e. the means of interacting appropriately though language with other human beings, singly or in groups) are included which are required by the learner's purposes ;
- 3). The methodology employed in SP-LT may be any that is appropriate to the learning/teaching situation(i. e. SP-LT is not itself a methodology and does not impose the choice of any specific methods upon those who learn and teach.)¹⁵⁾

用法の 規定과 관련하여 다음의 fig. 1도 대체로 무리가 없는 區分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긴 하지만 'EAP' vs 'EOP' 간에도 중첩되는 部分이 없지 않으며 특히 'EST'라는 用語도 쓰이고 있지만 'ESP'가 Science and Technology' 전반에 關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즘에 와서는 거의 通用되지 않는다”(see coffey 1984 vol 17. P. 14)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원칙론의 觀點에서 이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언어학자의 原理적 주장과 敎재를 摺衷하는 著자의 立場이 반드시 같을 수 없고 ESP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널리 通用되고 있기 때문이다.

15) *ibid.*, 1. P. Strevens. p. 150.

Pauline Robinson은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980, chapter 2. pp. 15-6. 2, 1 Historical survey of ESP에서 'The rise of ESP'와 'Recent Trend'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S>는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이하 EAP)와 ENGLISH for OCCUPATIONAL PURPOSES(=이하 EOP)로 나누어진다 :



전자는 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해 단시간 내 경제적으로 언어를 획득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할 것이고 후자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업무 수행상의 능력을 발휘할 목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둘다 기능상으로는 Communicative Competence의 진작에 主眼點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전자가 教育的(educational)인 것이라면 후자는 전문적 (professional)인 내용이 된다.

그 이유는 ESP의 본래의 성격이 학습자가 바라는 연구를 위해서나 직업상의 필요성 때문에 소용되었기 때문이다.

Mackey와 Mountford는 初中等 教育過程에서 배우는 外國語로서의 英語는 구조나 어휘의 법칙을 배우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성인이 배울 때는 'use'를 크게 意識하게 되고 그 'use'는 직업적 또는 학술적 요청에 소용된다고 하였다. /P3/

'That use is frequently associated with an occupational, academic or professional requirement'

그리고 학습동기와 교수활동의 효과면에 대한 언급에서 /P.4/

"When needs are clear, learning aims can be defined in terms of those specific purposes to which the language will be put, whether it be reading scientific papers or communicating with technicians on an oil rig.

The result is that almost immediately, teaching can be seen to be effective in that the learner begins to demonstrate communicative ability in the required area. Thus, it is the essential auxiliary role that English is called upon to play, particularly at the tertiary

level of education, that is a prime motivating factor.”¹⁶⁾

라 하여, 언어 사용의 필요성이 분명할 때 학습목표는 활용되어질 말의 특수목적에 따라 명백하게 규정될 수 있을 뿐더러 교수활동은 효과적이 되며 학습동기는 고조된다 하였다.

strevens도(1977 : P. 146) Definitions : SP-LT and ESP에서 교수내용과 목표가 학습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特殊目的을 위한 언어교육이 發生한다고 하였다.

“special-purpose language teaching (SP-LT) occurs whenever the content and aims of teaching are determined by the requirements of the learner rather than by external factors such as general educational criteria.”¹⁷⁾

또 ESP의 실제적 소용과 관련하여 Mackay와 Mountford는 다음의 세가지 purposes를 제시하였다.

“-occupational requirements, e. g. for international telephone operators, civil airline pilot, etc.,

“-vocational training programm, e. g. for hotel, and catering staff, technical trades, etc.,

“-academic or professional study, e. g. engineering, medicine, law, etc.”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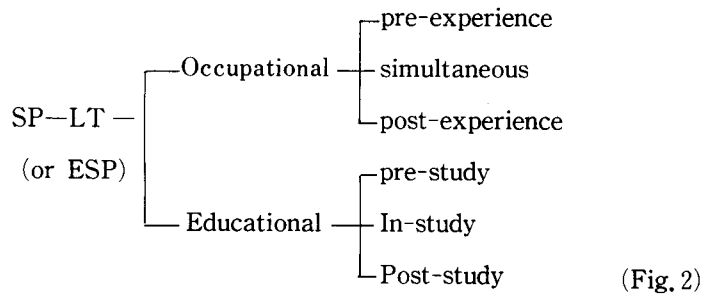
Strevens는 이를 다소 수정하여 “All SP-LT(Special-purpose language teaching) course are either occupational or educational nature. That is, They are undertaken by the learner because of language requirement in his job, or in his studies”(1977)라 하였으며 SP-LT 과정의 時期와 관련하여 직업적인 면과 교육적인 면을 각기 세가지 분지로 나누었다.¹⁹⁾

16) *ibid*, 2. Mackay and Mountford pp.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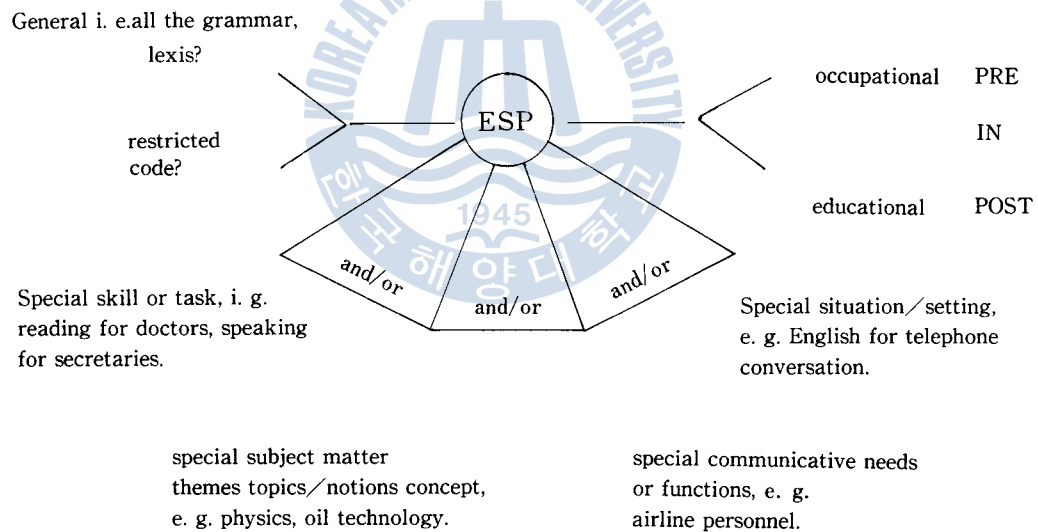
17) *ibid*, 1. P. Strevens. p. 146.

18) *ibid*, 2. R. Mackay & Mountford p. 2.

19) *ibid*, 1. P. Strevens. pp. 155--6.



결론적으로 말해서 Poulina Robinson(1980:P13)은 “We may say that an ESP Course is purposeful and is aimed at the successful performance of occupational or educational roles. it is based on a rigorous analysis of student’need and should be ‘tailor-made’.”라 하였으며 strevens의 diagram과 text의 내용을 본따서 다음(Fig3)과 같은 ESP과정의 도표를 내놓았다. : 20)



(fig. 3)

20) P. Robinson,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pergamon press, oxford, 1980, p. 13.

사실 ESP과정치고 skills, topics, situations, function은 물론 그것에 쓰일 Language의 선택상 모든 과정이 도저히 같을 수가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학습자는 대체로 성인이 되겠지만 언어능력이 Beginner일수도, post-beginner 일수도, intermediate일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그들 일원이 맡은바 직분에서 이미 전문적인 경지에 들어서 있다해도 母國語 못지않게 英語를 써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코자 의도하는 한 ESP는 母國語 못지않게 有用할 것이다.

따라서 ESP에 대한 이와같은 요청은 ESP의 作成者로 하여금 학습자의 요구를 진단해야 하고 communicative ability를 드 높일 수 있는 方向으로 기획된 syllabus의 창안 내지는 추출이 요구되는 등, 거개가 communicative categories內에서 교수용의 자료나 설명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IV. Syllabus論

言語에 대한 理論的 연구나, 응용 言語學에 있어서의 最近의 동향은 「언어의 活用」에 관한 理解의 폭을 어떻게 하면 더욱 더 확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겠다.

여기서 論하고자 하는 syllabus는 따라서 이 목적을 위한 교수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구체적인 지도내용으로 어떤 Topic에 대한 Curriculum상의 一部分이라고 할 수 있다. D. A. Wilkins는 /Applied Linguistics Vol. II NO. 1. spring, 1981에서

“Syllabus are specifications of the content of language teaching which have been submitted to some degree of structuring of ordering with the aim of making teaching and learning a more effective process.”²¹⁾

라 定義하고 syllabus의 종류를 ;

A. Grammatical syllabus, B. Situational syllabus, C. Notional syllabus로 나누었는데

21) D. A. Wilkins, Applied Linguistics, vol. II, No. 1, spring 1981, p. 83. in 'Discussion Notional Syllaabus Revisted.'

이를 설명하여 ;

- a) 를 文法的 기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langage teaching의 構成을 構造상, 원칙적으로, 잘 짜여진 일련의 文法 범주를 제공하는 syllabus라 하고
- b) 를 상황에 따라 언어교수가 구성하거나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제반 상황의 분석을 통하여 학습내용을 짠 syllabus를 이룸하며
- c) 는 말에 의해서 늘어난 그말의 기능(functions)이나 表出된 말의 뜻을 강조함으로써 balance of priorities를 변경코자 시도하는 ; -광의의 의미로 볼때, 화자나 필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syllabus라 하였다.

各項에 해당하는 그의 설명을 요약해 보면 다음(a' b' c')과 같다.

a') Grammatical syllabus :

語學教育 過程에서 보통 어휘와 文法構造를 병행하며 다루고 있으나 어휘쪽에 더 우선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것이 Grammatical syllabus라고 하고 이는 아마도 학습된 어휘는 쉽게 잊어먹지 않으며 학습자의 욕구를 붙들어 둘수있고 게다가 어휘공부가 학습자에게 그리큰 부담을 주지않기 때문이라고 여기는에서 온것으로 본다하였다.

그는 어휘의 相對的 有用度를 설정하는 기준으로써

- 1) frequency 2) range 3) availability 4) familiarity 5) coverage 를 들었다. :

그리고 이상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부연하였다.

“The criteria that have been used in establishing the relative usefulness of words are frequency, range, availability, familiarity and coverage.”²²⁾A

#The notion of Frequency is self-evident.

#Range relates to the distribution of a lexical item over a number of idfferent types of text.

#Availability(disponibilit ) account for lexical items which may not be particularly frequent but which are readily available to the speaker when he needs them.

22) A. B. D. A. Wilkins, Notional Syllabus,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p. 4-7

#As with Familiarity it is measured by means of speakers' responses rather than by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ext. In establishing the availability of lexical items subjects are asked to list the words which they would find most useful in certain defined areas of interest. The degree of familiarity of an item is assessed by asking the subjects to rank words in a given list on a familiarity scale.

#The Coverage Of a lexical item is rated high if it expresses a range of meaning in particular contexts.

한편 文法의 構造面에 있어서는 교수상의 文法內容과 관련하여 가장 흔히 쓰이는 言語學的 기준을 :

1) simplicity 2) regularity 3) frequency and contrastive difficulty로 들고 있다. simplicity란, 보다 복잡한 文法構造의 교수이전에 쉬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며 ; regularity란,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요긴한 言語學的 構造를 (The most productive linguistic structures) 가르쳐야 함을 뜻하며 ;

frequency and contrastive difficulty란, 빈도상으로 보아 지극히 모호하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 文法形態를 초기단계에서 使用하지 말고 후기단계로 거치시키라는 뜻이며 대조상의 어려움이 거의 없는 形態의 말을 초기단계에서 가르치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요약하면 syllabus의 作成時 가장 有用하다고 여겨지는 文法的 構成의 文章에다 그 內容에서 중요한 어휘를 추출하여 合成的 方法으로 syllabus로 構成한다는 것으로

이 方法은 언어습득이 어휘항목의 단계적인 축적과정이라 할때에 어휘와 文法을 分離하여 누적적으로 학습을 쌓게할 수 있다라는 점은 조리에 합당한 책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教育的인 고려와 함께 상호연관을 맺는 또다른 기준이 제재됨을 간과할 수 없다 할것이다.

wilkins는 역시 그 기준을

1. 'social utility or probability of occurrence'라 하여 매일같이 使用하는 말에서 반드시 표출되어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말은 社會的으로 실용성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말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2. 'pedagogic utility'라 하여 가령 어휘와 文法構造의 교수에 있어(교사가 채택하기를 바라는 교수방법이나 기교의 측면에서 교실환경이나 교수상의 적정성 여부의 고려)서 教育的인 實用性的의 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가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교육적 고려에서 가장 重要한 핵심은 익히 아는 평범한 것에서 시작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흔히 쓰는 말에서 생소한 것으로 교수해 나간다는 원칙이 근간을 이루는 교수상의 책략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方法(grammatical syllabus)에는 否定的 측면도 없지 않다.

그것은 성질상 어휘와 文法은 보완적인 것이므로 ‘어휘와 文法’, 이 양자에서 그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하는 문제와 실용성과 文法的인 난해성의 상충등, 어떤 기준에 역점을 두어 syllabus를 作成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스스로 판단하는 결정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다분히 主觀的일 수 밖에 없는 난점이 있다고 지적된 다음말에서 그 취약점을 찾을 수 있다:

“One of the problems faced in selecting and grading language is that the various lexical and grammatical criteria conflict with one another as often as they complement one another and there is no way in which weightings can be given to them. A highly desirable lexical item may cause grammatical difficulties. Productive forms may nonetheless be complex. As a result, a good deal of the decision-making remains subjective.” Wilkins. 1979. p. 7. ²²⁾B

그런데 어떤 항목의 效果的인 교수란 다른 항목의 우선적인 습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syllabus내에는 필수적으로 어떤 部分은 言語學的인 要素가 加味될 것이고 어떤 部分은 教育的인 要素도 고려되어 그럴사한 grammatical forms이 형성된다고 보겠다.

따라서 言語教授에 있어서 Grammatical syllabus는 가장 기본적으로 고도 전통적인 syllabus의 한 형태라 할수 있지만 syllabus design에 있어서 部分的 文法構造의 목록이 교재의 핵심을 이루고 어휘내용이 부차적인 중요성을 띠게 됨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Grammatical syllabus는 syllabus design의 기법상으로 wilkins가 말하는 ‘합성적 방법’의 원형이라 할 것이다.

b') Situational syllabus:

22) B. *ibid*, 22. A. D. A. Wilkins p. 7.

위에 적은 Grammatical syllabus가 現實的 言語活動이나 使用에 있어 效果가 限定되어 있으므로 처음부터 場面에 부합할 수 있는 syllabus를 학습자에게 보다 광범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作成이 시도된 것(situational syllabus)으로 교재구성상 前者와 함께 가장 광범하게 쓰이며 前者의 약점을 보완하여 그것과 대체시킨다는 목적에서 흔히 사용되어 왔다.

Wilkins는 situational syllabus의 설명(PP16—17)에서 'languages가 보통 일반적인 체계로 묘사되었다 해도 언제나 사회적 정황에서 사용되며 그 정황과 관계없는 말은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우리가 택한 언어형태는 어떤 경우이든 社會的情況의 特性에 따라 制限의 일 수 있으므로 당면하는 상황에서 使用할 수 있는 언어를 必要로 한다' 하였다 따라서 주제나 내용 지향의 학습보다는 학습자와 그들의 필요성(The needs)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syllabus-designer나 교재가 해야 할 일은 학습자가 필요로 할 상황을 예측하는 일과 이 상황에 처하여 말을 말답게 표현하는데 필요한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야만 학습자가 바라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고 학습내용은 주제 위주라기 보다는 학습자 위주의 것이 될 것임으로 효과적인 교수 과정이 창출되고 보다 높은 동기유발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learning과 use」간의 區別이 사라지고 syllabus의 units는 'situation'이라는 'label'이 붙을 수 있는 syllabus라는 것이다.

학습자 위주의 내용/보다 높은 동기유발/효과적인 교수과정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situational syllabus는 대단히 만족스런 결과가 보장된 듯 싶다. 그러나 학습자가 필요로 할 상황을 예측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 wilkins는 syllabus가 강조하고 있는 行動主義的 分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황의 重要特性을 서술하기 위한 일련의 모집단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言語活動이 發生하는 心理的 정황도 이 特性속에 포함시키면서 syllabus가 다르면 전혀다른 유형의 학습자가 생겨난다 하였다. 따라서 syllabus의 內容은 行動主義 心理學에 근거한 사려깊은 예측에서 나온 적절할 내용이 되어야하고 언어정황과 이들 제반 정황에 대한 언어학적 내용을 기술한 목록으로 syllabus가 조직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wilkins, 1979. PP. 16—7)

예측도 예측이려니와 'situation'이라는 말의 의미에도 해석상 난점은 있다 하겠다. 가령 물리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話者가 반드시 物理的 환경에 처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제한된 物理的 환경이라 하더라도 언어는 반드시 정황과 관계가 있는것은 아닌 것이다.

환언하면 우체국에 가거나 역에 간다고 해서 반드시 우편업무나 열차의 利用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정확한 말이라 하여도 반드시 정황에 고유한 표현만으로는 만족스런 'situational syllabus'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난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장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syllabus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 하겠다. 제한적인 정황에서 일하는, 이를테면 관광객의 가이드, 웨이트, 전화교환수를 위한 'situational syllabus'는 이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욕구에 걸맞는 'syllabus'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有用하다 하겠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장면에 부합되는 특성을 모조리 기술하기란 어렵다는 문제점 외에도 언어와 場面間에 존재하는 연관성을 알게 해 주는 언어에 대한 통찰력의 잇점도 상실하고 말 위험도 있다. 한마디로 인간의 심리상태를 물리적 정황으로 썸하려는 시도만큼이나 話者의 심리상태에 의해서 들어날 화자의 표현행위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wilkins도 관찰할 수 있고 기술할 수 있는 정황의 합을 'situation'으로 보는 것이 최선이라 하였다.

"It seems best, therefore, to retain the term situation for the sum of the observable and independently describable features of the context in which a language event occurs."²³⁾

또 교수활동과 관련하여 wilkins는 "There are reasons for doubting whether they can be taken as a model for general organization of language teaching"(see P. 16 wilkins, 1979)이라 지적하였지만 한가지 목적에 지나치게 치중하다보면 다른 목적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듯이 特定한 상황에서 목적있는 對話交換을 의도할 경우 教授者의 입장에서 보면 文型의 構成에 制限을 물고 올 것이고 學習者의 입장에서 보면 文型의 습득에 있어 그 效果가 한정되고 마는 부작용이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structural approach'와 'situational approach'의 결합이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에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시사되고 있음을 본다. (하선은 필자)

"The situational ('dialogue') approach aimed at meaningful conversational interchange in specific contexts has suffered from haphazard arrangement of language patterns in the dialogue which limited their effectiveness for teaching the patterns.

23) *ibid*, 22, A. B. D. A. Wilkind, 1979, 'Approaches to Languages Syllabus Design'.

Recent suggestions would combine the structural and situational approaches in structured dialogues, directed discourse, or situational drills. ‘Task oriented’ exercises represent an attempt to bring students into meaningful interrelationship with each other.”²⁴⁾

c’) Notional syllabus :

‘Grammatical syllabus’의 취약점을 補完내지는 대체한다는 면에서 소용된 ‘Situational syllabus’의 잇점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전자의 추구점이 目標言語의 형식을 통해 학습자가 점진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도록 교수한다는 취지의 것이라면 후자는 母國語者가 使用하는 言語의 장면을 재창조 해보고자 의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름 적절한 의사소통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Notional syllabus’는 출발부터 ‘communicative capacity’를 배양할 목적에서 나온 것이므로 상기한 두 syllabuses와는 대조적이다. Wilkins는 전술한 ‘Grammatical syllabus’ 및 ‘Situational syllabus’와 ‘Notional syllabus’(cf 참조)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이렇게 적고 있다.

“The notional syllabus is in contrast with the other two because it takes the desired communicative capacity as the starting point. In drawing up a notional syllabus, instead of asking how speakers of the language express themselves or when and where they use the language, we ask what it is they communicate through language. We are then able to organize language teaching in terms of the content rather than the form of the language. For this reason the resulting is called a notional syllabus.”²⁵⁾

24) Yalden, The Communicative Syllabus, Evolution, Design & Implementation, Oxford, Pergamon Institute of English, 1983, pp. 36-39.

25) *ibid*, 22, 1979, p. 18, Notional Syllabus,

cf : The term notional is borrowed from Linguistics where grammars based emantic criteria are commonly called notional grammar, (Formal Grammars where the criteria used in analysis are Formal).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교수상의 지적(하선은 필자)으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그 目的 이라면 目標言語의 형태보다는 內容이라는 견지에서 syllabus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主張 이다. 따라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은 무엇이 학습자를 外國語로 가장 유용하게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겠는가를 고려의 기저로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 래야만 가장 유용한 최적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를 위한 unit는 語意內容에(semantic content)우선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며 언어내용은 학습자의 語意에 관한 요구(semantic demands)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학습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미를 나르는 범주들 3가지 유형으로 보았는데

A. Semantico Grammatical meaning

B. Modal meaning C. Communicative functional meaning 이 그것 이
다.

A : Semantico-Grammatical Categories

1. Time
 - a) Point of time
 - b) Duration
 - c) Time relation
 - d) Frequency
 - e) Sequency
 - f) (age)

Quantity : Divided and undivided reference. Numerals. Operations.

2. Space
 - a) Dimensions
 - b) Location
 - c) Motion

Relational meaning : *Sentential relation ; Agent, Initiator, Object,
Beneficiary, Instrument.

*Predication and attribution.

Deixis : Time, Place, Person.

Modal meaning categories : Modality ; Scale of certainty :
impersonalized, Personalized,

Scale of commitment : Intention, Obligation.

3. Case
- a) Agentive
 - b) Objective
 - c) Dative
 - d) Instrumental
 - e) Locative
 - g) Benefactive

B : Categories of Communicative Function

* Judgement and evaluation : Valuation. Verdiction ;
committal. Release. Approval. Disapproval.

* Suasion : Inducement. Compulsion. Prediction. Tolerance.

1. Argument(i. e. Categories relating to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view).

- a) Information asserted and sought.(denied)
- b) Agreement
- c) Disagreement
- d) Denial
- e) Concession

Rational enquiry and exposition. Personal emotions : Positive.

Negative.

2. Emotional Relations(i. e. expression of response to events usually involving interlocutors)

- a) Greetings
- b) Sympathy
- c) Gratitude
- d) Flattery
- f) Hostility²⁶⁾

26) *ibid*, 22. D. A. Wilkins. Categories for a Notional Syllabus, pp. 25—54, and The Communicative Teaching of English, Edited and Translated by Christopher N. Candlin, Longman, London, 1985. --Form, Function and Strategy in Communicative Curriculum Design pp. 26—27.

그리고 이 'Notional syllabus'의 잇점이 처음부터 文法的 要素나 情況的 要素에 대한 시각을 빠뜨리지 않고 의사소통에 필요한 실제 그대로 언어사실을 취급하고 있고 Grammatical syllabus에 비해서 학습자가 의사소통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훨씬 우세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언어의 활용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동기유발의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重要的 文法的인 어형이 수록되고 일정한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의 통어기능(functions)뿐만 아니라 모든류의 정황을 망라할 수 있는 syllabus여서 situational syllabus에 비해서 훨씬 더 우수하다는 主張을 펴고 있다.

요약해 보건데 wilkins의 主張은 notions과 functions의 기준에 따라 교수내용과 교수요점이 구체화 될 수 있는 syllabus design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지론은 곧 'Meaning and function of language is seen as more important than form of language'라는 원칙에서 있다.

그러나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언어(학) 개론적인 Indo-European어계에 대한 Wilkins의 언급이다:

"In Indo-European languages at least there i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these types of meaning and grammatical systems, so that equivalent systems among different languages can be identified without much difficulty."²⁷⁾

즉, 우리로서는 이들 언어가 갖는 잇점의 한계 밖에 있는 다른 어계에 속해 있어 학습자는 물론 教授자도 文化的인 차이를 극복하기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meaning과 function의 기준에 합당한 syllabus를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접근하기가 그리 용이한 일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주장과 관련하여 또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목표언어에 대하여 지나치게 전달능력만을 강조하다보면 우리의 학습현장에서 보는바대로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文化的 相互理解의 關心事 따위는 완전히 배제되고 마는 것이 상례라는 점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학습은 학습자의 행동심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각자는 약간씩 다른 필요성과 동기가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학습 style도 다를 수 있다.

27) ibid, 22. D. A. Wilkins, Components of a Notional Syllabus. 1979, p. 22.

Syllabus가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이기 전에 교수자의 입장에서 作成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되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실제에 바탕을 둔 syllabus를 作成함에 있어서 격에 맞는 적절한 usage를 활용하고 Meaning과 Function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發話者가 言語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모든 syllabus를 분류하여 content를 짚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며 설사 그것이 만들어 졌다 해도 어디에서 이용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적시됨이 없이, 가령 전화를 빌려쓰는데에 기본적인 sentence만

주. 위에서 정리한 의미 범주는 1972년 strasbourg에서 있는 유럽학술회의에서 David Wilkins가 내놓은 'An investigation into the linguistic and situational content of the common core in a unit/credit system'라는 논제의 발표를 Christopher N. Candlin이 요약정리한 것이며 분류번호가 붙지 않고 포기된 내용은 필자가 Wilkins의 저서에서 순서대로 삼입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 분야에 선도적인 研究物을 내놓고 있는 Leech and Startvick, Candlin, Wilkins등의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보는 의미의 견해를 Munby (Communicative syllabus Design, 1978. p. 134)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Type/ Layer of meaning	Leech and Startvick (1975)	Candlin(1976)	Wilkins(1976)	
1	Concepts (basic meaning categories of grammar)	Notional meaning (basic meaning categories of grammar)	Semantico- grammatical categories (conceptual)	} (notional)
2	Information, reality and belief (logical communication)	Referential Meaning (propositional value/ locutionary force)	Categories of modal meaning (modal/ functional)	
3	Mood, emotion and attitude (pragmatic value)	Sociolinguistic meaning (pragmatic value/ illocutionary force)	Categories of communicative function (functional)	
4	Meanings in connected discourse (textual/discourse aspect of communication)	Contextual meaning (positional significance in discourse)		

Some communicative views of meaning

해도 무려 16가지의 forms을 (see, Wilkins 1979 ; applications of a notional syllabus in 「Global Course Design」 PP.60~61) 작성하거나 가르친다는 일이 손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엽적인 어려움이 있음도 사실이지만 wilkins가 主張한 原理는 syllabus design에 'well merit concern'을 불러 일으켰다는 C. B. Paulston의 comment에 는 同感이며 ESP의 syllabus design에서도 활용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V. 해사영어 교재분석과

Communicative materials의 design論

i) 海事業務도 TTF의 한 分野라 할수 있다. 이는 곧 원리상으로는 ESP의 (EOP에 屬하기도 하고 EAP의 범주에도 겹쳐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Strevens는 'SP-LT와 science discourse'라는 선상에서 ESP(이 경우 English for special purpose)와 EST (English for Science & Technology)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구분이 해사영어에 관한 論議의 시도에 있어 本論과 더 有關한 원칙론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ESP는 全部는 아니지만 科學과 關係가 깊다. 科學冊에 쓰인말은 그 책이 담고있는 내용의 뜻을 설명하기위한 목적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의미를 규정하고 분류하며 관찰결과를 일반화하고 결론을 내리는등의 過程은 일반적인 Communicative language로 나타난다. 따라서 EST 분야에서 Communication의 활동들은 과학책이 담고있는 내용설명에 일부라 해도 좋겠다. EST교재와 언어교수의 역할을 말하는 가운데 Widdowson (: 1974)이 지적한 이말은 EST교재가 그 성격상 대부분이 특정언어의 명확한 'Sub-code'이거나 형식상 구분되는 'Notion of Register'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Language teachers engaged in preparing English material for student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other specialist areas of use have supposed their task involves simply the selection and presentation of those lexical and syntactic features which occur most commonly in passages of English dealing with the specialist topics their students are

concerned with.”²⁸⁾

특히 EST와 관련하여 전형적인 교재로 취급하고 있는 Ewer and Latorre의 Basic Scientific English(1969)가 채택하고 있는 EST Course의 design과정을 Mackay와 Mountford(1978 : 16)가 약술한 다음말을 보아도 초기의 이 교재가 언어체계의 ‘Code feature’에 대한 지식과 함께 학생들이 바라느바 필요한 용어를 제공했으나 본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또하나의 必要性, 즉 언어의 ‘communicative function’이라는 면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볼 수 있다.

- (a) Analyses of English actually used in the “target” conditions ;
- (b) Selection of the most frequently-occurring or useful items in relation to the teaching time available ;
- (c) Systematic exercising and drilling of this material in contexts reflecting the special interests of the learners ;
- (d) The provision of supplementary readings from the corresponding literature.”(see, 1978. Mackay and Mountford. p. 16)²⁹⁾

그후 Herbert(1965)가 구조적으로는 다르지만 관념상으로는 동일한 표현의 언어에 쓰일 수 있는 ‘Notional approach’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를테면 그의 Notions은 quantity, velocity, movement, dependence, Purpose, etc.,를 포함하고 있다. (see, Mackay and Mountford. p. 17) 그러나 이것도 Herbert가 단일개념의 표현에 쓰일수 있는 여러가지 structures를 예시한 효과는 크지만 ‘Scientific Concept와 Communicative Concept’를 혼동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

“Herbert tends to confuse concepts that belong to science as a discipline and ‘concept’ that belong to the communication of science as a subject.

Thus velocity is a scientific concept whereas purpose and classification are

28) H. G. Widdowson. ‘An approach to the teaching of scientific English Discourse’ in RELC Journal vol. 5 No. 1, 1974. Mackay & Mountford. p. 16.

29) Ewer, J. R. & Lattore, G. ‘Preparing on English Course for Students of Science’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vol. xxi. No. 3. 1967. p. 229.

communicative 'concept' or acts.

Quantity, movement, dependence, etc. have no particular status but are notional or semantic categories which may be realised by particular linguistic forms.”³⁰⁾

그러나, Herbert가 구조적으로 표현을 다양화 시키고 어떤말을 쓸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는 개인에게 맡겼다고 하여도 이 두 표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것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 이러한 표현이 더 유용하게 쓰일수 있는가를 지적하지 않은 오류를 능가 하는 발전적 모델이라 할 것이다.

Stevens는 'Teaching materials'와 관련시켜 SP-LT의 교재와 일반교재의 차이점을 대체로 다음과 같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러한 것도 흐름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도 아래에서 지적한 면면들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 i) More concentration on reading and less on speaking and writing ;
- ii) The use of edited authentic texts from the special fields, usually glossed, as comprehension practice ;
- iii) Collaborative authorship between language teacher and subject specialist ;
- iv) Inclusion of notional, functional and communicativ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material and the organisation of practical learning/teaching tasks..(see, 1977. p160). ³¹⁾

이상과 같은 Stevens의 지적은 'Mackay & Mountford' : 1978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see : pp. 39--40)

즉 · Swale, John. writing Scientific English, Nelson, 1971.

· Allen, J. P. B. and Widdowson, H. G., English in Focus : English in physical science, OUP, 1974.

· Bates, M. and Dudley-Evans, A., Nucleus, Longman, 1976.

30) *ibid*, 2. Mackay & Mountford. 1978. pp. 17-18.

31) P. Stevens. *Language Teaching & Linguistics ; Abstracts*. Cambridge Univ. Press. vol. 10. No. 3. July 1977. p. 160.

들이 EST 과정에 쓰여진 Textbook인데 이 모두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 i) -Aimed at students who are in their first year of tertiary level education.
- ii) -Presuppose that learners have had a considerable amount of English tuition at the secondary level and possess, what might be called 'a dormant competence' in English.
- iii) -Share the view that the difficulties which students have appear to arise from their unfamiliarity with English use in Scientific writing.
- iv) -Take an approach to the selection and grading of linguistic items to be practised which emphasises the communicative function as well as, and in relation to, linguistic forms.
- v) -Make the assumption that learners have acquired a knowledge of basic science during their secondary level education.³²⁾

그런데, 언어의 형태 못지않게 전달기능을 강조(iv)하고 있는 부분은 각자의 견해나 관점의 차이는 물론 Textbook의 제작에서 부터 方法論에 이르기 까지 실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걸음 발전한 시도였다고 하겠다. 어쨌든 과거의 과학서적은 그 내용이 언어의 형식적인 특성 가운데에서도 이를테면 *passive, relative, clause, universal present, vocabulary* 등등에 있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고 記述은 양적이었으며 *scientific discourse*라는 전달적인 측면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 공통적 견해이다. 그러나 지금은 언어사용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의사전달의 활동이 주안점으로 포함된 조리가 정연한 연속문을 만들어 냄으로써 'reading/listening/comprehension을 위한 materials을 개편하거나 더욱더 발전을 시키는데도 유익할 뿐더러 오늘날의 영어학습과 교수활동이 단순히 언어의 구조적인 형식 테두리를 떠나 Notions에 집중되고 있어 'meaning'과 'messages'를 나르기 위한 'total system'의 運用 상 一助가 된다고 할때 ESP에 있어서도 ELT에 못지않게 유용하리라 사료된다.

32) *ibid*, 2. R. Mackay & A. Mountford. 'approach to ESP textbook design' 1978. pp. 39-40.

ii) John Munby가 Syllabus의 모델을 design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specific' L²의 이론 '틀'은 母國語 話者가 아닌 第二外國語 話者에게는 학습이나 교수상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커다란 짐을 지워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환언하면 우리에게 'General'의 이론 '틀'도 부담인데 하물며 'specific'의 이론 '틀'은 학습자에게나 교수자에게 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general'의 이론 '틀'(see fig : 4.)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母國語 話者는 syllabus를 구체화 시키는 잠재적 영역인 ABC항목은 물론 학습자가 목표를 확인하거나 확인시킬수 있는 다양한 융통성이 부여될 수 있으며 다만 어떤 특정의 언어를 syllabus화 할것인가 하는 제약을 받을 뿐이다.

그러나, 제 2 외국어 화자에게는 'general'의 이론 '틀'은 물론 'specific'의 그것도 결코 용이한 과정이 아니다. 간추리면 후자의 경우는 'general'의 process와 specific'의 process, 그 모두가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즉 언어의 인식적 기능과 어형의 지식, 그리고 문장에 대한 지식의 바탕위에서 드디어 의사전달의 행동이 구체화 되는데 여기서 학습자의 욕구와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syllabus를 짜내야 함으로 부딪치는 애로는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그러나 비슷한 말로 누구에게서나 지적되듯이 오늘날 언어를 보는 눈은 Communication이 더이상 어떤 내용의 주제와 유리된 것이 아니고 주제의 일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주제의 핵심적인 부분이 말로 표현되는 내용이고 보면 EST로서 과학을 학습한다함은 단순히 어떤 事實에 대한 학습만이 아닌 것이다. 어떤 과정에 대한 논거를 표현, 정의, 분류하고 일반화하여 가설을 세우고 결론을 내리는데 언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학습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scientific discourse'를 단순히 언어체계의 예증 정도로 다루는 것을 피하고 'Communicative value'라는 特長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1) 기초 과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topics에 따른 문장(passage)과 언어 체계가 과학적 사실들의 개념을 표현하면서도 통사적 복잡성과 특이한 문체의 특성을 피함과 동시에 Communication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Communicative value'가 있는말을 전면배치 함으로써 문장을 구성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

2) 그리고 각 passage에 Comprehension의 항목이 주어지고 language function이 여하이 그 내용에 담긴 정보를 (나르게 할것인가를) 학습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에서 Reading에 유의토록함이 중요하며,

4) pedagogic factor로 분류(see 1978 : pp. 7-10)하였으며 Strevens(1977, a)도 special communicative purposes(for specific job)의 categories를 7개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A. Operating safety rules.
- B. Protective clothing and equipment.
- C. Particular hazards.
- D. Tools, equipment, instruments, materials.
- E. Individual tasks ; separate stages or processes.
- F. Special register features.
- G. Local dialect, accent.³⁴⁾

iii) Bakr(1979)³⁵⁾는 'English for nautical students'라는 主題의 서문에서 과거의 EST 교재들에 대한 비평을 가하려는 듯 언어교수와 주제가 유리된 그런 책이 아니라 유의한 의사전달을 목적으로 이 양자를 겸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용과 유의한 표현을 연결시켜 나가면서 주제에 대해 새로운 흥미를 북돋게 하고 그리하여 文法的인 어려움을 줄여 나갈수 있도록 하되 부자연스런 어휘나 문형을 피하면서 의사전달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유용한 언어資源을 총동원 했다고 하였다. 연습문항도 기계적인 익히기를 피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문제 해결을 할수 있도록 기획함으로써 내용과 표현상의 관련성을 학습자가 인식토록해서 전문분야에 관련된 말을 이해토록 하게했다는 취지를 강조하면서 海事관계의 학습자가 영어로 전문적이고도 일반적인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전달을 할수있게 한다는 것이 주안이라 하였다. 그가 시도한 교재 구성은 「Reading text」와 Reading text에 바탕을 둔 「Exercises」로 大別할 수 있다.

「Reading text」에서는 장래 학습자가 접하게 될 전문분야의 주제에 대한 technical term을 소개하고 읽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英語를 매체로 하여 海事환경에서 학습자가 여하히 의사전달을 해야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시도된 문장들로 짜여져 있다.

「Exercises」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6개의 항목으로 나눌수 있다.

- 1) Comprehension checks ; 本文에 내용에 따른 서술이 옳은가 옳지않은가를 학습자

34) ibid, 1. 'Special-Purpose Language Learning : A Perspective'. p. 158.

35) Bakr. English for Nautical Students. Brown, Son & Ferguson. Ltd. Glasgow. 1979. pp. vii-ix.

에게 묻는 형식으로 본문의 주안점을 철저히 이해 시킴으로써 전문적인 분야에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자에게 불어 넣자는 의도가 보이고,

2) A Contextural reference ; 本文의 서술내용을 또 다른 내용과 연결시킬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가 어떤 특정의 문맥이나 특정내용을 인식하거나 암기토록 유도함에 주안점이 있는것이 아니고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활동에 있어서 내용에 나타난 일반적인 언어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는데 뜻이 있다 하겠고,

3) Rearranging Sentences ; 언어의 활용에 있어 학습자로 하여금 해사영어에 대한 형식상의 특성에 대한 感을 익히도록 하는데 유용한 책략을 동원하고 있는점과,

4) Writing ability ; 학습자로 하여금 topic을 아주 간단한 문장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의향으로 Writing을 Communicative ability의 제고에 연결시키고 있으며,

5) Question formation ; 읽고쓰기와 듣기와 말하기가 하나같이 중요하지만 의문문을 짓고 질문하기란 지식정보의 수집이나 의사소통의 행위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언어조작 능력을 배양한다고 볼때 가장 중요한 학습과정이다 그런데 연습문항에서 이 점이 특히 잘 고려되고 있는바 이는 학습자의 훈련에 매우 적절한 역점으로 보이며,

6) Basic structures ; 학습자로 하여금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적정수준의 기본적인 해사영어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의사전달에 연결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기획(design)되었다는 점 등을 들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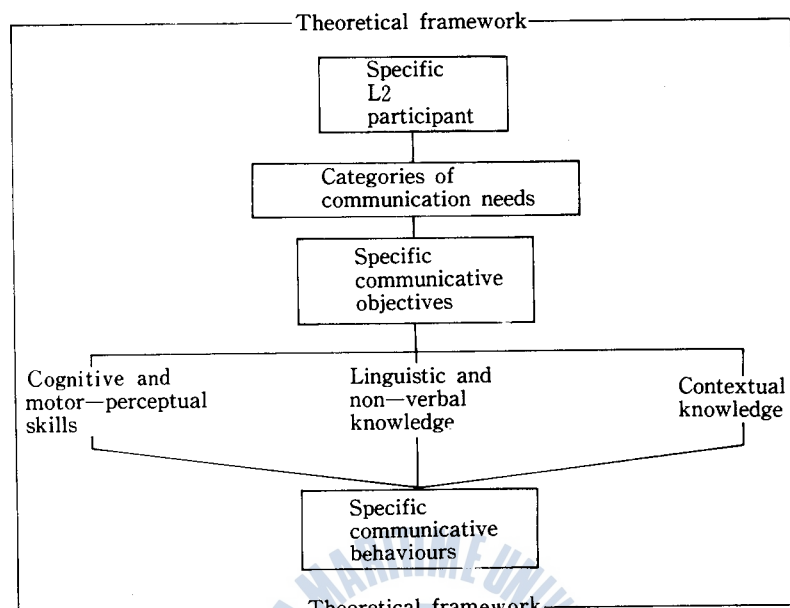
기타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는것은 해사영어의 전문분야는 물론 유관분야의 부속물에 대한 용어간의 관련성을 인식시키고 보다 심오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연습문항이 반복적이고 포출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형이 짜여져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해본 교재보다 한걸음 수준이 격상된 교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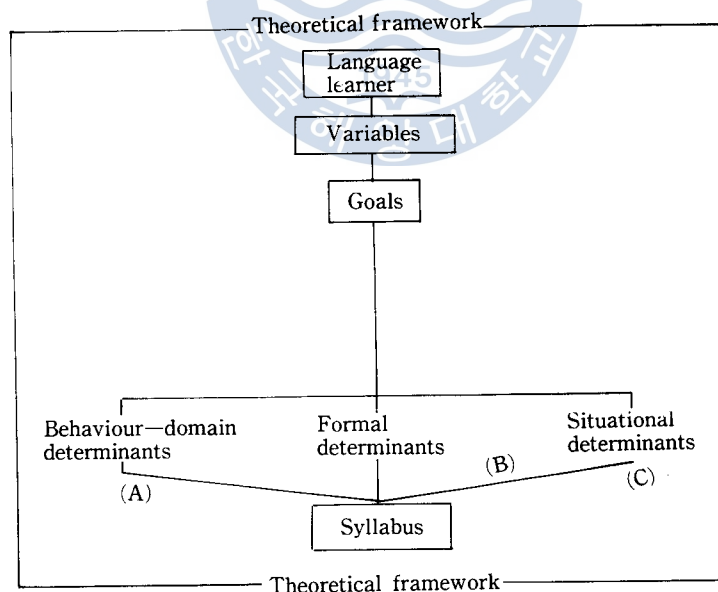
English for Maritime studies ; by T. N. Blakey(1983)이 그것이다.

내용은 전술한 Bakr의 것과 대동소이 하지만 구성면은 훨씬 더 조직적이고 난이도가 높다. 그는 序文에서

“(It) is an English language course designed to help non-native English-speaking cadets and qualified personnel who are studying for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t nautical



A. (specific)



B. (general)

(fig.4) A. B. John Munby. Communicative Syllabus Design. Cambridge Univ. Press, 1987.

pp. 28-9.

3) 다음으로 「the function of the language + his understanding」=Comprehension/question을 유도하거나 답을 주도록 유도시킨다. 이때 Comprehension과 'check questions' 및 'solutions'은 'discourse'와 연결된다는 것을 유의토록 한다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Allen & Widdowson은 Communicative Value에 초점을 맞춰 7개항의 Exercise를 제시하고 있다. (pp. 63-67)³³⁾

- Ex. 1. Pronoun reference.
- Ex. 2. Rephrasing.
- Ex. 3. Relationships between statements.
- Ex. 4. Statesments based on diagrams.
- Ex. 5. Definition in seientifie discourse.
- Ex. 6. Formation of the impersonal passive.
- Ex. 7. Time expression.

그런데 앞의 4개항이 Discourse/The Communicative use라고 한다면 다음 3개항은 syllabus design에 있어서 유의한 문법적 요소의 설명을 강조하고 있는것 처럼 보인다. 위의 항을 필자는 이렇게 풀이해 보았다.

Ex. 1=Writing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Comprehension Cheek Questions.

Ex. 2=어떤 discourse function을 학습자가 인지토록 의도하는 simple copying exercise.

Ex. 3=어떤 내용에서 들어난 바를 학습자가 생산적으로 표출토록 요구하는 과정.

Ex. 4=통상 subject matter와 내용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학습자에게 Communication의 활동을 통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시키는 단계.

Ex. 5='A thermometer is an Instrument'식의 기초적 형태를 기술함.

Ex. 6=Active sentences→Passive sentences.

Ex. 7=어휘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시각을 깨우침이 그것이다.

한편 Mackay & Mountford는 EST Course를 design함에 있어서 포함시켜야 할 4가지 요소의 Headings를 1) social factor 2) linguistic factor 3) psychological factor

33) J. P. B. Allen & H. G. Widdowson. 'Teaching the Communicative Use of English. pp. 63-67.

college and naval establishments throughout the world where the medium of English is used”³⁶⁾

라 함으로써 EAP와 EOP를 겸한 명실상부한, ESP원칙론에 부합되는 해사영어 임을 자랑한다. 모두 12 Units로 분류된 이 교재는 단원마다 Reading comprehension, Grammar, Applied terminology, Guided writing, Note-taking practice,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회에 걸친 Reading comprehension의 항목과 2회의 Guided writing으로 모두 7개 항목으로 한 단원이 짜여져 있다. 최초의 4개 단원과 단원 X과 단원 XI은 선박士官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유익한 거의 모든 영역의 topics을 망라하고 있으며 그밖에 항해, 기관, 해상통신 적하등의 특정영역의 학습자를 위한 단원이 포함되고 있다.

동시에 항해와 기관에 屬하는 器機名과 전문적인 용어들을 학습자가 익힐 수 있도록 ‘Note-taking practice’와 ‘Applied terminology’항목을 두었는가 하면 선박과 해운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추어 줄 수 있게 ‘Reading comprehension’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한 단원이 7개 항목으로 짜여져 있어 Non-native students에게는 한 단원을 교수하거나 학습하는데 소요되는 時間이 최소한 10시간이상은 필요함으로 교수와 학습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선별적인 교수계획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각각의 Topics, 그 이상으로 각 Syllabus는 여러가지 要素, 즉 Function, Notion, Setting, Role-relationship에 합당한 Role-playing에 따라 dialogue의 형태도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평가해 보건데 지금까지 발간된 해사영어 관계서적들은 Communicative ability를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만의 서책이었다가 보다는 다양한 topics에 관한 지식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었고 또 그것이 해사영어에 대한 phrase-book의 성격일 수 만은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Units의 구성부터가 복합적일 수 밖에 없었다 하겠다.

36) T. N. Blakey. English for Maritime Studies, Pergamon Press. Oxford. 1983. pp. xi-xiii.

VI. Sea-speak : Communicative syllabus의 試案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요한 의사전달행위는 선내외의 두가지 의사전달 活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活動은 선내의 경우는 선박이 장착하고 있는 선내의 전화체계나 Voice Pipes 또는 (Bridge에서 Engine-room으로의 체계는) telegraph에 의해 이뤄지며 船外의 것은 단거리에서는 Visual, Sound signal 또는 Loudspeaker로, 장거리의 경우는 주로 Radio(무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그 무엇보다도 VHF Communication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해상에서는 VHF Radio를 통한 Sea-speak는 사용자가 준수해야할 일정한 규칙과 제약(ITU의 규약따위)이 따르므로 멧세지의 구조를 조직하는데 있어서도 특별한 주의와 관행에 대한 지식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즉 동일한 의미의 말을 표현함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쓴 英語의 長文이 아닌 좀 더 간결한 형태의 말이 필요한 것이다. 가령 다음의 주문은 대체로 보아도 세가지 형태의 축약적인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I did not hear your last Message : please repeat it.”

- a. ‘Say that again, will you?’
- b. ‘Do you mind repeating what you(have just) said?’
- c. ‘What did you say?’

‘Sea-speak’에서는 분명하게 확인이 요청되는 언사에서는 ‘say again’이라는 말을 쓴다. 이처럼 관행으로 쓰이고 있는 ‘sea speak’특유의 기본적이고도 ‘specific’한 phrases를 숙지해야 하는등의 훈련이 필요하게 된다.

Fred weeks et al.은 이 기본이 되는 Standard phrases를 이용하여 Message의 구성에서 부터 Role-relationship에 따라 나타난 Role-player의 dialogue에 의해 들어난 정보의 내용이 종결될 때 까지를 모두 4 단계 (1. Standard phrases 2. Message markers 3. Message patterns 4. Message 교환을 위한 ‘Full competence’를 쌓는데 필수적인 요점으로 보았다.

다음은 필자가 上記한 4 가지 Headings에 대한 사항을 번역하거나 재구성하고 설명을

부가하여 정리한 다음, Sea-speak의 진행과정과 유의해야할 syllabus를 design해 본 것이다.

1) List of standard phrases : *Asterisks의 표시는 Maritime VHF를 통하여 가장 빈번히 쓰이는 말임을 나타내며 따라서 접촉을 유지할때 가장 긴요한 것으로 철저히 연습을 쌓아야 한다는 어구이다. 이들 'phrases'는 대체로 6개의 Headings으로 분류된다.

Making and

maintaining

contact.

- | | |
|----------------------------|----------------------------------|
| 1. *All ships(in ... area) | 8. Stand by on VHF channel... |
| 2. Calling ... | 9. Standing by on VHF channel... |
| 3. *How do you read | 10. Stop transmitting |
| 4. *I read ...(1-5) | 11. *This is ... |
| 5. *Interruption. | 12. Unknown ship... |
| 6. *Out. | 13. Wait... minutes. |
| 7. *Over. | |

Conversation

controls,

- 14. Break.
- 15. *Nothing more.
- 16. Please acknowledge.
- 17. Please read back.
- 18. Read back.
- 19. *Stay on
- 20. Understood
- 21. Readback is corrected

Clarification.

- 22. Correction
- 23. Mistake
- 24. Please speak in full
- 25. Please speak slowly
- 26. Please spell...
- 27. I spell...
- 28. Please use Seaspeak

- | | |
|--------------------|------------------------------------|
| | 29. * Say again... |
| | 30. * I say again... |
| Announcements. | 31. Final call. |
| | 32. Message for you. |
| | 33. Pass your message. |
| | 34. Reference... |
| Polite statements. | 35. Sorry |
| | 36. * Thank you |
| Channel switching. | 37. * On VHF channel... |
| | 38. * Switch to VHF channel... |
| | 39. * Agree VHF channel... |
| | 40. * VHF channels..... available. |
| | 41. VHF channels..... unable. |
| | 42. * Which VHF channel? |

2) Message Markers ; Maritime message는 간결해야 함은 물론 정확해야 하지만 'Non-native speaker of English'도 쉽게 알아 들을수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어떤 류의 message가 오고 갈것이라는 (어떤류의 대답이나 조언, 청원, 경고, 지시, 정보, 의향의 표현)것을 상정해 놓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왜냐하면 message의 교환은 상호간의 활동이며 그래야만 혼란을 막고 번갈아 message를 수신하고 응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Standard phrases가 상세히 세분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목록으로 그 내용이 앞에서 정리되었지만 Maritime message를 실어 통달함에 있어서는 그리 크게 소용된다고 할수 없으며 Message Markers와 Reply Markers가 대체로 다음의 7 항목으로 쓰여지고 있으므로 이의 철저한 숙달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Message Markers

- a. Question
- b. Instruction
- c. Advice

Reply Markers

- a. Answer
- b. Instruction-Received
- c. Advice-Received

d. Request		d. Request-Received
e. Information		e. Information-Received
f. Warning		f. Warning-Received
g. Intention		g. Intention-Received

- a. What is your ETA at the dock entrance? My ETA at dock entrance is :time :
one-six-zero-zero GMT.
- b. Go to berth number ; Two-five. Go to berth number : two-five, positive.
- c. Please anchor, position : bearing : one- Anchor, Position : bearing : one-nine-
nine-four degrees true, from keel point : four degrees true, from keel point. Distance
distance one mile. one mile.
- d. Please send, quantity : five acetylene Send, quantity : five acetylene cylinders,
cylinders. positive.
- e. The pilot is waiting now at position : The pilot is waiting now at position :
Near buoy number : two-six. buoy number : two-six.
- f. Buoy number : two-five and buoy 19 Buoy number : two five and buoy
number two-six are unlit. number : two-six are unlit.
- g. I intend to reduced speed, new speed : You intend to reduce speed, new speed :
six knots. six knots.

3) Message patterns : sea speak의 message 와 이에 따른 message replies는 엄격히 따라야 할 patterns이 있다. standard phrases를 숙지하고 message markers가 가령 Question에 있어서 (정해진 types를 이용하여 message를 구성하여 의사통달을 시도하지 않고) 영어가 지닌 다양한 의문문의 형태 즉 “isn't it?”라거나 “Won't they?” 따위의 말이 부가되는 의문이나 단순히 voice의 tone에 의한 Question으로 상대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면 예상되는 혼란은 자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Message markers에 들어난 유형에 의거 Message의 patterns을 쓰도록 강력히 권장되고 있다.

A. Question & Answer ;

- a. wh-question을 유도하는 이른바 「when, what, where, why, which, who, how many」등으로 시작하는 질문과 답변형
 - (a) Q : What is your ETA, position : buoy number : two-three?
 - (b) Q : How many tugs are requires?
- b. 「X or Y」의 양자택일형 질문과 답변
 - (b) Q : Is the vessel loading or unloading ?
- c. 「Yes or No」가 요구되는 질문과 답변형 : 특히 이에대한 답변은 「positive or negative」 or 「I do not know」를 신속히, 그리고 반드시 첨언해야 한다.
 - (c) Q : Do you intend to pass ahead of me?
 - Q : Is the beacon operating normally?
 - Q : Is buy number : Two-three in the correct position?
 - Ans : My ETA, position : buoy number : two-three is : time : one-six-zero GMT.
 - or I do not know my ETA, position : Buoy number : two-three.
 - Ans : The vessel is loading.
 - or I do not know if the vessel is loading or unloading.
 - Ans:Positive, buoy number : two-three is in the correct position.
 - or Negative, buoy number : two-three is not in the correct position.
 - or I do not know if buoy number : two-three is in the correct position.

B. Instruction : 이 patterns에는 turn..., anchor..., stop..., or ;do not turn..., do not anchor..., do not stop...,등의 어구가 반드시 따른다 그런데 일단 Instruction이 주어지면 Received쪽에서 이에 따른다(=agreement)거나 따르지 않을 (=disagreement)경우 및 그 사유를 첨언할때가 있다.

Instruction :

Stop your engines. or Do not anchor in the fairway.

Received :

Do not anchor in the fairway, positive. —agreement—

Stop my engine, negative. —disagreement—

—Reason—

Stop my engines, negative, reason : the tide is too strong.

C. Advice : 때때로 'Please'가 첨언되는 것 외에도 대체로 B의 Instruction patterns과 同一한 표현을 쓴다.

Advice :

Turn to starboard.

Received :

Turn to starboard, positive. —agreement— Or

Received :

Turn to starboard, negative, reason : another vessel is approaching. —disagreement ; reason—

D. Request : Please, supply, please deliver 등의 말이 어떤 Items를 요청할 때 쓰이며 이경우 흔히 사유나 확인 절차가 많이 따른다.

Request : Please deliver : quantity : one thousand metric tonnes, fresh water to berth number : two-six.

Request Received :

Please deliver : quantity : one thousand metric tonnes fresh water to berth number : two-six, positive. —agreement—.

or

Request Received : Deliver, quantity : one thousand metric tonnes fresh water to berth number : two-six, negative.

—disagreement—

—Reason—

Request Received :

Deliver, quantity : one thousand metric tonnes fresh water to berth

number : two-six, negative, reason : the barge is busy now.

—Confirm—

Request : Please confirm that your length is : two-six-zero metres.

E. Information and warning : 이들 Message의 type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응답도 정보나 경고에 대한 추인 정도에 그친다.

Information : No vessels are at the anchorage.

My ETA at the West pier is : time : one-six-three-zero GMT.

The icebreaker intends to assemble the convoy at time : zero-five-three-zero GMT.

The casualty is approximately, position : north distance : three miles from you.

Warning : A vessel is adrift, Position : near the foreland light.

A strong south-westerly wind is blowing now at the berth.

Buoy number : three-five is off position.

—Acknowledgement—

Information Received : The icebreaker intends to assemble the convoy at time : zero-five-three-zero GMT.

Warning Received : A vessel is adrift, position : near the foreland light.

F. Intention : 「I will」, 「I intend to」의 표현을 쓴다. 이 경우 「I」란 「this ship」, 「My ship」 또는 승선하고 있는 Crew member를 뜻한다. 그런데 원인이나 이유를 표현하는 말에도 so that, in order to, since, because, as, due to. 따위의 여러가지 표현이 있지만 「sea speak」에는 오직 Reason이라는 용어를 써서 의향을 표시하고 Received쪽에서는 Positive, Negative,로 상대의 의향에 대해 반응을 보여야 한다.

Ex. Intention : I intend to anchor now, and I will proceed to the berth at time : zero-six-zero-zero GMT.

Intention : I intend to unload hold number : five.

Intention : I intend to reduce speed, new speed : seven knots. —Reason—

Intention : I intend to enter the berth stern first, reason : my starboard thruster is damaged.

I. Received : Stop immediately, negative, reason : I am towing now.

G. Clarifying Message : 통상 Message는 보다 확실한 것이 못되면 응답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맞는다. 이때는 Question에 따르는 보다 자세한 해명이 Question으로 Message를 보내게 되고 응답을 받게된다.

Ex.

1 st message	1 st speaker	Q : what is your ETA at Dover ?
Clarification message	2 nd speaker	Q : Do you want my ETA at the East entrance or the West entrance ?
Clarification Provided	1 st speaker	A : I want your ETA at the East entrance.
Response to 1 st message	2 nd speaker	A : My ETA at the East entrance is : time : one-five-three-zero GMT.

4) Message checks ; 이는 양쪽의 화술들이 오해나 잘못을 정정하기 위한 Confirmation과 Correction이 따른다. 정상적인 대화의 흐름에서는 갖가지 종류의 질문과 응답이 있을 것이다. 가령「speaker A」가 「speaker B」에게 요청을 한다거나 정보를 보내는 형태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는 A의 말을 인용하고 Positive, Negative, Understood, Nothing more, 말을 포함시켜 응답하는 것이 보통이다.

Ex. speaker A

Shell southport. This is HANBADA.

Request : Please supply bunkers : quantity : two thousand metric tonnes.
over.

Speaker B

HANBADA. This is HANBADA.

R. Received : Supply bunkers : quantity : two thousand metric tonnes, positive.

Over

Understood ;

Shell southport. This is HANBADA.

Understood : Supply bunkers, Positive.

Out.

Nothing more ;

Shell southport. This is HANBADA.

Information ; bunkering is completed.

Nothing more.

Over.

HANBADA. This is shell southport.

Information Received ; bunkering is completed.

Out.

Correction ;

HANBADA. This is shell southport.

Information Received : berthing is completed.

Shell southport. This is HANBADA

Mistake.

Information : bunkering is completed

Over.

Confirmation ;

1 st speaker : Q : What is your ETA at the dock entrance?

2 nd speaker : A : My ETA at the dock entrance is time : one-six-zero-zero GMT.

1 st speaker : Understood, time : one-six-zero-zero GMT.

그런데 이상에서 유념할것은 「Understood」는 곧 「I received the following information」라는 뜻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자체로는 충분한 응답이 될수 없다. 따라서 상호이해의 확인 형태로서 명확한 정보(하선부분)가 반드시 첨언되어야 한다.

끝으로 상기한 확인도 중요하지만 Mistake의 교정은(원활한 의사소통을 근본적으로

막거나 오류를 범하게 됨으로) 반복되는 질의를 통해 Standard phrases에 의하여 그 요점이 축약적으로 교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은 「berth」와 「one-six-zero-zero GMT」라는 의사통달에서 발생한 Mistake와 Correction의 예이다.

1 st speaker : Q : What is your ETA at the dock entrance?

2 nd speaker : A : My ETA at the berth is time : one-six-zero-zero GMT.

1 st speaker : Mistake.

Q : What is yopur ETA at the dock entrance?

2 nd speaker : Correction.

A : My ETA at the dock entrance is time : one-five-zero-zero GMT.

1 st speaker : Understood, time ; one-five-zero-zero GMT.

* Final readback

2 nd speaker : : My ETA at the dock entrance is : time : one-five-zero-zero GMT.

1 st speaker : Understood, time : one-six-zero-zero GMT.

2 nd speaker : Mistake.

Time : one-five-zero-zero GMT.

1 st speaker : Correction. Time : one-five-zero-zero GMT.

이상에서 기술된 사항은 message의 발신과 수신 단계로 보면, Make contact—agree/channel-exchanging messages-terminate로 종결되는 해사영어 Topics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내용을 Standard phrases에 맞추어 표현한 것일 뿐이다. Standard phrases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러한 phrases들이 standardised(표준화)되었다기 보다는 표준화의 과정에 있다가나 표준화가 되기를 희망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더 정확할 것이다.

VII. 결 론

중등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부터 영어를 학습하기 시작하는 우리는 영어를 배우게 됨으로서 좀더 폭이 넓혀진 일반교육의 경지에 들어선다는 만족감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해도 좋을 것이다. 환언하면 초보자에게 어떤 situation에서 당장 구체적인 목적을 위하여 배우고 있는 말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따위의 절박한 요구사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면 정기적으로 치루는 시험 만이 이에 해당할 뿐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어휘나 통사상의 규칙을 그때그때 방편으로 익히게 되고 매우 기본적인 언어체계가 Audio Lingual method에 의한 drill이나, Habit formation theory에 의해 영어에 대한 구조주의론자들의 기술을 답습하면서 연습을 쌓아왔다. 이렇듯 전통적인 영어교수기법이 효과면에서 전부가 실제의 의사소통의 활동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 뿐이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교육방법이 Communicative purposes를 위한 언어활동에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규칙을 전수시킬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판단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어학교육이란 사실상 '거치'된 상태에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쌓인 거치된 언어능력 또는 언어에 대한 이해는 학문적인 영역에 들어서는 대학에 와서야 비로소 유용한 도움을 받게 된다.

ESP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이점에 관한 한 Native Speaker이건 Non-Native Speaker이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논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와는 다르바가 없다.

어쨌든 Occupational, Vocational, Academic/Professional등의 제반영역에서 요청되는 ESP로서의 외국어의 지식을 갖추지 않고는 선택된 직업 영역에서 자기발전이 극도로 제한되거나 최소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되어 버렸다. 과학잡지를 읽는 것이든 기술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든 간에 필요성이 분명할 때 학습목표는 이들 특수목적에 따라 쓰일수 있는 전문 용어가 Syllabus내에 수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학습자는 Required area에 대한 Communicative Ability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열의를 배가 할 것이고 교수자의 강의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제작된 자료들(Materials)이 Communicative Ability를 진작 시킬수 있는 필요성(Requirement)과 제휴될 수 있다면 그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Tertiary Level의 Language Course도 결국은 Grammatical Structure, 또는 Lexical Items을 교수상 중점으로 다루면서 약간의 어학적 형태를 변경시키는 것 이상의 조작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고있다. 그러므로 결과는 Secondary Level의 수준에 대부분 맴돌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외국어 수업자체의 상황적 가치를 의심스럽게 하였고 한편으로 학습자 자신의 언어해득 능력을 회의적으로 자탄하게 함으로써 커다란 부작용을 낳았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학습자가 바라는 주제의 전문화라든가 Communicative의 필요성 또는 Teaching Materials에 대한 연구의 열기를 둔화 시켰던 요인이라 할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반양상이 다시한번 출발점에 서서 영어가 시험의 목적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Communicative의 도구로 회생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English Language Training(=이하 EST)에 있어서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졌다고 하겠다.

ESP는 따라서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새로운 Approach였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본론에서 ESP의 역사적 유래와 syllabus론 및 Sea-speak 교재의 분석을 통하여 Sea-speak communicative materials의 바람직한 design에 대한 소고의 요약을 그때마다 결론에 가름하는 내용으로 부기하였다. 침언할 것은 Sea-speak syllabus의 試案에서 볼수 있는것과 같이 해사영어에 있어서 이 분야가 여러가지 많은 Topics중에서 상선사관이면 필지해야하는 바 고유한 전문성의 중핵적인 분야라는 것과 이에 관한 해박하고 정확한 지식의 습득이 긴요할 뿐더러 필수적임을 말해 두고자 할 뿐이다.

특기할 것은 이를 통한 의사전달 행위가 船內外에 관계없이 一船的인 대화의 의사전달 manner와 특징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즉

첫째, 정상적인 대화 활동에서 볼수 있는것 보다 속도가 느리며

둘째, voice-level이 비교적 평면적이고

셋째, 어휘의 발음을 절대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Topics에 대한 이해와 syllabus의 활용 즉 의사전달 행위에 앞서서 standard phrases의 숙지는 물론 약어를 포함한 관용상의 어휘, 문법 그리고 발음(phonology)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은 필수적이라 할것이다.

Bibliography

- Allen, J. P. and Widdowson, H. G. 'Teaching the Communicative Use of English' 1974.
- Bakr. English for Nautical Students. Son, & Ferguson Ltd., 1979
- Blakey, T. N. English for Maritime Studies. Pergamon Press, Oxford, 1983
- Coffey, B. "Language Teaching" The International Abstracting Journal for Language Teachers and Applied Linguistics :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vol, 17 No. 1 Jan. 1984
- Candlin, C. N. The Communicative Teaching English : 'Form, Function and Strategy in Communicative Curriculum Design', Longman, London, 1985
- Ewer, J. R. and Lattore, G. "English Language Teaching" : 'Preparing an English Course for Students of Science' vol, 21 No. 3, 1967
- Fred Weeks et al. Seaspeak Training Manual—Essential English for International Maritime Use—. Pergamon Press, Oxford, 1988
- Mackay, R. and Mountford, A.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Longman, 1978
- Munby, J. Communicative Syllabus Desig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Robinson, P.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Pergamon Press, Oxford, 1980
- Stevens, P. Language Teaching and Linguistics, Abstracts : 'Special-purpose Language ; A Perspective' vol, 10 No. 3, July. 1977
- Widdowson, H. G. 'An approach to the Teaching of Scientific English Discourse' in RELC Journal, vol, 5 No. 1, 1974
- Wilkins, D. A. Notional Syllabus.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_____ Applied Linguistics. 'Discussion Notional Syllabus Revisted', vol, 2 No, 1 Spring. 1981
- Willmott. PMLT Topic Summary—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985—6
- Yalden, The Communicative Syllabus : Evolution, Design & Implementation, Oxford, Pergamon Institute of English, 1983
- Ki—moo, Bae. A Communicative Syllabus for Seafaring English. KMU, No. 19 1984